

오피니언

진중권의 세상보기



박근혜는 민주주의자인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던 박근혜 후보의 대학 강연은 영동하게 학생 강제동원 시비만 낳은 채 하루무게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지금까지 할 말은 다했다"며, 더 이상 진전된 언급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의 정당성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신념은 뿌리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경색해 보니 2002년과 2007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대선 때마다 이 문제에 불거져 나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박 후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5·16은 혁명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이라는 것이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그저 혈육의 관계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를 잘 만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 삶의 모델이다. 특히 정치인이 된 지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 이자 승리이며,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한 마디로 박근혜에게 박정희는 '다른

자아'(alter ego)다. 따라서 박정희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 그녀가 유신독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애써 거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자인가?'

박정희는 절대로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친일에서 좌익에서 반공으로, 그의 사상적 행각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5·16 쿠데타 당시에 박정희의 사상은 2·26 쿠데타를 일으킨 일본 청년장교단의 그것과 일치한다. 물론 이들은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었다. 이것이 박정희가 가진 정치철학의 원형이다.

그런 박정희가 '정치인' 박근혜에게는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일본의 파시스트를 토대로 일본은 박정희로부터 고스란히 정치철학을 물려받은 인물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정치철학이 되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보 겸증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고, 반드시 대답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민생행보' 따위로 이 물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후보 톤론이 벌어지면, 어차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할 테니까.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물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나라가 혼란스러워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대통령으로서 이를 혁명이라 환영할 것인가?' 둘째, '국민이 자신의 통치에 저항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유신과 같은 강력한 조작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오늘 새누리당 공보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갈라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만약에 박근혜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가령, 과거사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렇 게 말한다고 해 보자. "한일 사이에는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역사를 선악의 이분법적으로 갈라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박근혜는 뭐라고 대꾸할 것인가?

우리가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던가? 아니다. '과거'에 대한 물음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유신독재에 대한 물음 역시 한가한 역사학적 물음이 아니다. 특정 후보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긴급한 질문이다.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 고 칼럼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사람

강상원

가끔 나는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을 찾거나 깊은 휴식을 취하곤 한다. 자주 가는 곳이 광주에서 가까운 순창골 강천사이다. 그곳에 가면 조용히 생각하며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오전 시간을 전천히 걷다 내려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변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한정식을 하는 곳 치고 가격이 소박해 처음에는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오는 음식을 보니 도시의 그럴싸한 한정식 못지 않게 반찬의 종류도 많고 맛도 뛰어지지 않았다.

한정식을 하는 곳 치고 가격이 소박해 처음에는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오는 음식을 보니 도시의 그럴싸한 한정식 못지 않게 반찬의 종류도 많고 맛도 뛰어지지 않았다.

흡족하게 배를 채우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소박한 시끌アナ네처럼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돈을 받았다.

"주인이십니까?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 다. 주방장이 음식을 잘하는군요."라고 했더니 자신이 주인이며 직접 모든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주방을 남에게 맡기면 식당은 망합니다. 주방은 주인이 맡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이 맑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인의 위치를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주인보다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종의 위치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

야 한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이란 무엇인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삶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일한다.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또 앞으로 월 일을 기대하며 스스로 즐겁게 일한다. 쉽게 지치지도, 피곤해 하지도 않는다. 불평불만도 없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현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해 가면서 성장 발전한다. 그 가슴에는 열정과 충성이 들어 있다.

조만식 선생은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어려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자긍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성으로 일을 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윤이 나에게 닦아놓곤 했다.

주인은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주인은 이 청년이 머슴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학자금을 대주며 평양에 있는 승술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 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는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성실하게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지도자)이 된다.

성경에서도 '무엇을 맡든지 선한 청지기 가 되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된다.

바라기는 어디에서든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새밝교회 담임목사·대통령 소속 사회통합 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회장〉

그로 미테의 레지던시작가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달덩이에 소원빌기, 금줄에 소망 글쓰기, 나도 작가-솜씨 뽐내기 등이 준비돼 있다.

대인시장은 한때 호남을 대표하던 큰 시장이었다. 양동시장이 흥어와 야채로 유명했다면 대인시장은 건어물과 약재상으로 유명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다. 이후 사장없이 주관되었던 1987년에는 비트음악을 시작으로 밴드와 무용 팀의 공연이 벌어지고 공연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장이 펼쳐졌다. 그 사이로 만물예술마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시장을 찾은 이들을 유혹했다.

시장상인들이 직접 만든 전과 음료, 커피, 그리고 신선한 과일 등의 먹거리는 물론 상주예술가들이 만들어 들고 나온 소품 등 예술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도 대인시장은 재래시장의 쓸쓸함을 확 벗어제쳤는데 전국 지자체들의 부려움을 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예술의 웃을 입은 채 현대판 장터의 소통과 화합을 잘 벼루려고 내고 있다. 야시장에서 필자 또한 적잖은 반가운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사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예술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녹아든 대인예술시장, 오늘 한번 나와보시라. 얼마나 재미있는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폭 2.3m 주차공간 비좁아 자동차 자주 긁히고 불편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당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옆 차가 문을 열 때 그 문쪽에 의해 내 차의 문쪽을 찍히는 경우이다. 새 차면 말할 수도 없고, 한동안 탄 중고차라 해도 내 차가 옆 차에 의해 문을 찍힐 걸 보면 여간 속상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누가 그랬는지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찾는다 해도 보상받기도 힘들다. 그냥 속만 상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들은 문 찍힘 방지를 위해 가드를 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무척 귀찮은 일이고, 또한

상에겐 가슴 아린 슬픔으로 다가선다. 그 옛날, 장터는 결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놀거리와 먹거리 풍성한 놀이터였고 어른들이 예전 이웃들과 만나는 소통의 장이었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극장과 문화사랑방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어머니는 이웃마을 친정집 소식을 전해온 친정붙이들에게 들었고 또, 다른 마을로 시집간 친구들의 귀향을 전해듣기도 했다. 때론 기쁜 소식에 가슴 설렜고 때론 슬픈 소식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5일을 기다렸다가 달려간 장터는 그 시절 많은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공간이었다.

그 마법의 공간이 쇠미의 끝자락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이다. 대인의 무관심의 대상에서 현재형으로 다가온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때 복덕방프로젝트로 예술의 웃을 입은 대인시장이 드디어 불을 밝히고 밤까지 호령하고 나섰

반면 같은 기간 차는 계속 커졌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나온 승용차가 엘란트라나 아반떼 같은 게 있는데 그 후 나온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같은 차들은 그 당시가 장난 아니게 커졌다.

차는 커지는데 반해 주차장 공간은 그대로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 옆 차를 찍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하고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오다 보면 내 옆으로 차들을 죄다 박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참고로 소형차가 많은 유럽은 2.4m, 프랑스는 2.5m로 우리보다 넓고 이웃 일본도 2.5m로 꽤 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도 주차장 크기를 좀 넓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나 일반 주차장의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이게 여전히 주차장 규정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차의 찍힘이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주차장은 여전히 비좁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다. 즉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 규격은 20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작은 웃을 얹고 지로 깨운 셈이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폭 2.3m로 되어 있다. 주차장법 규정이 1990년 만들어진 뒤 20년 넘게 그대로인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6282 팩스 062-222-4918 e-mail opinion@kwangju.co.kr

시설

불법사채업 '솜방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사채기 끊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의면 벌금과 함께 다시 불법부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있다. 보증과 담보 요구 등 문턱 높은 제도권 금융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미소금융 등 서민 대출 상품을 통해 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구속된 대부업자는 1.2%에 불과하다.

적발자들 가운데 99% 가량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단순 벌금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류관매업 등을 하면서 불법부업에 뛰어드는 20~30대 미등록 대부업자까지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불법부업의 폐해는 무엇보다 서민들이 수십만~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5·18이 공산혁명'이라는 책 돌린 법원장

법원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면서 세상에 나와, 악계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적혀 있다.

박 법원장은 내부 논란이 일자 판사들에게 배포해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자인 광주시민들로선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법정부적으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미당에 반역사적 인 책이 나돌고, 법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책을 돌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 때문이다.

20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 법원장은 지난해 10월 '헌법과 과세'이라는 책을 법원부장관에게 걸쳐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법정부적으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미당에 반역사적인 책이 나돌고, 법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책을 돌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 때문이다.

박 법원장은 경위를 소홀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도 진상조사를 벌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반역사적인 망동과 출판물에 대해선 법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33세로 요절한 가수 김정호는 광주 북동천주교회 옆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서울로 전학갈 때 까지 대인동에서 살았다. 김정호의 의기는 단양으로 '가장 한국적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그의 음악도 외가쪽의 영향을 받았다.